

(서식 3)

## 자기소개서

소 속	○○초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 성장 엿보기



19xx.x.~19xx.x.

### 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다짐

자녀교육에 대한 한 숨과 고달픈 삶을 이겨 내신 부모님  
형제들의 도움으로 ○○에서 공부한 철부지

○○년 3남 2녀의 막내로 부안군 ○○○에서 태어나 2살 무렵 열병으로 윗목에서 이틀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으며 남의 집 더부살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6살과 4살 터울인 누나들을 따라 국민(초등)학교 조기 교육도 받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형제들이 학업 대신 생업전선에 뛰어 들거나 주간 노동과 야간 학업을 병행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초등)학교 시절에는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준다는 말에 ○○○부에서 2년동안 선수 생활을 하였고 ○○중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을 돕겠다고 기웃거리면서 농사일(모내기, 김매기 경운기 운전, 나락포대 옮기기 등)을 하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노랫말처럼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며 아들(다리가 부러진)에게 짜장면을 사 주시던 그 시절 저에게 부모님은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하도록 뒷바라지를 못하는 것을 자책하시고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 현실의 고달픈 삶을 이겨내시는 모습’ 이였으므로 저는 ‘내 자녀에게는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계고등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을 하고 싶었으나 누나들의 반대로 전주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학원이나 과외 그리고 참고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다짐을 꼭 이루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에서 초등교사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 실천 톺아보기



19xx.x.~20xx.x.

### 우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익숙함에 도전

교육을 통해 독립할 수 있도록 함께한 도전의 연속  
추억을 쌓고 희망을 바라보는 주인공 만들기

○○년 ○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시절을 거쳐 9월에 ○○ ○○면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고 고향 후배들을 위한 참된 교사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했지만 학생들의 상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조손가정이거나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의 소극적인 교육적 참여 그리고 공부에 대한 약한 의지 등이 저를 노력은 하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는 서투른 교사로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년 ○월 ○일 안타깝게도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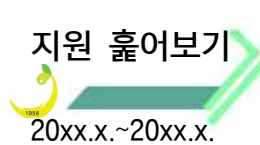
슬픔과 아쉬움을 나누게 되었으며 학생들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원과정 이수를 통해 새로운 움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〇〇년 〇〇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우물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 독립할 수 있는 길**”로 청소년 단체활동을 선택했으며 **학생들이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보다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익숙했던 교직생활에 많은 도전을 하였습니다.

〇〇년 〇〇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월드컵 야외 응원 및 제주도 수학여행 그리고 청소년단체 활동의 대중화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많은 추억을 쌓도록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회활동과 지도교사로서 **영재(과학)교육 통한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더불어, 학교행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제공 하기 위해 저경력이고 힘들었지만 교무업무(총 9년동안)를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〇〇년 10년동안 성장한 교사의 모습을 〇〇초등학교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야간돌봄교육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위한 한바퀴(외발)자전거**를 만나게 된 것은 제게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문회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〇〇〇이 건립되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 학교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〇〇년 학생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교사교육에 대해 더 공부를 하고자 선택한 〇〇〇〇〇〇〇초등학교에서 교육 전문가의 기본인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 수업연구 및 교실 수업 개선 활동, 초등〇〇〇〇〇지도 등으로 좋은 교사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역사 교육 공간** 조성과 학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경험을 위해 **한바퀴(외발)자전거, 국악관현악단, 국제교류학습**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〇〇〇〇〇〇 황학당과 〇〇문화회관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소통과 협력으로 따뜻한 동행

웃으며 마중하는 친한 친구 되기

교실 맞춤형 혁신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〇〇년 〇월부터 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만남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고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선생님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나 외부행사운영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〇〇〇초등학교에서 강제전학으로 인해 발생된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이 교육적치료를 받고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복한 등굣길을 위해 학생들과 웃으며 눈을 마주치는 인사를 하였고 서로 마음을 터 놓는 친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수월성 교육의 STEAM 선도학교(3년), 체험중심 진로교육 집중지원학교(1년), AI와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선도학교(2년), 작은학교 살리는 어울림학교(2년), 따뜻한 돌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늘봄집중학교(1년),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유·초이음시범학교(3년)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동행하였습니다.

## 보답 펼쳐보기



2025.9.~2029.8.

## 학교생활은 ‘풍요롭게’ 내일의 삶은 ‘찬란하게’

맞춤형 체험활동을 통해 자존감 높이기(추억의 반올림)

색깔 있는 진로교육을 통해 자긍심 갖기(희망의 마중물)

부모님들의 빛나는 별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더 빛을 내고 내일의 삶을 위해 각자의 다양한 색으로 물들 수 있도록 교육하여 우리 부안남초등학교가 부안교육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일번지가 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학생들에게 풍요로운 학교생활로 추억을 반올림하며 찬란한 내일의 삶에 대한 희망을 마중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가. 끼·꿈·멋으로 나만의 색에 물들다.(추억의 반올림)

- 1) 학생통합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포토폴리오 작성후 학부모와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맞춤형(기본학습, 건강, 교육복지, 상담 등)지원을 하겠습니다.
- 2)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도가 높은 따뜻한 돌봄과 풍성한 늘봄 학교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 3) 지역특색인 바둑과 문예교육을 특색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사고력과 풍부한 감성을 함양하고 관련 대회 참가 지원 및 작가들의 창작 공간을 형성하겠습니다.
- 4) 한바퀴(외발)자전거, 대취타 등과 같은 특별한 재능교육으로 다양한 발표회나 지역행사에 초청되는 기회로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5) 자신의 색(버킷리스트)에 맞는 빛을 낼 수 있도록 표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수준 높은 체험교육을 바탕으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6) 학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성(선한 영향력) 실천 교육과 함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품격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별을 우주로 보내다(희망의 마중물)

- 1) 청소년단체활동으로 리더쉽과 지속발전가능한 목표를 실천하는 국제적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사고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농생명바이오 교육을 위한 스마트팜 운영과 석동산 솔바람길과 연계한 생태환경(탄소 중립, ESG연계)교육을 실천 중심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 3) 동문회(지역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부안남 연어챌린지”를 통해 부안남초등학교 70주년 너머 100주년을 준비하는 학교 역사공간 조성 및 학교 교육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4) (가칭)전북국제교육원(백련초근처)를 활용한 국제교류(대만,일본)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 선생님이 많이 웃을수록 학생들이 행복합니다.(존중과 사랑 받는 선생님)

- 1) 선생님은 기본학력신장과 교육과정 운영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적 성장을 위한 수업연찬(수업참관 등)과 개인적 활동(힐링 연수)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2) 학교 구성원의 학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복지 및 편의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관련된 힘듦은 앞서서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교육자로 받았던 고마움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감을 바탕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진실되고 간절하게 부안남초등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년의 시간이 흐른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문회(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기대 그 이상의 만족과 더할 나위 없었다’는 평가를 꼭 받고 싶습니다.